

[여수·순천·광양]

여수 화양농공단지 일부 업체 슬그머니 업종 변경 오염물질 배출 油化제품 생산

폐수 등 환경 오염...인근 농경지 잇단 피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허술한 인허가 절차와 관계기관의 사후 관리감독 소홀로 승인받지 않은 입주금지 품목을 생산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여수 화양농공단지 인근 지역인 화양면 나진리 2만 4천여평의 논은 지난 8월 폐수가 흘러들어 농민들이 6천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나진리 농민들은 지난 2004년에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이와관련 여수시 의회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생산품목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일부 업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품목을 생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공단에 입주한 S업체의 경우 입주 당시 동물성 유지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신고했으나 현재는 동물성 유지외에 석유화학 관련 제조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에 대한 원폐수 등 시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입주업체인 P사, I사, B사 등 10여개사도 농공단지입주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관련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공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 고효주 환경복지위원장은 “공감입주 승인을 받은 뒤 생산된 제품의 종류가 바뀌거나, 사용된 원료가 변경돼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된다면 관련 인허가를 새롭게 얻어야 하나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거쳐 해당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화양농공단지에는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전국 아름다운 숲’ 우수상 광양 동백숲 산림청과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유한 킴벌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 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광양 옥룡사지 동백숲이 공존상(우수상)에 선정됐다. <광양시청 제공>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실업교육 박람회에는 학과별 홍보관과 작품 전시관 등 변화된 실업교육의 진면목을 소개하는 다양한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내가 만든 자동차 구경 하세요”

■ 순천 팔마체육관서 전남실업교육 박람회 도내 64개 실업계고 참가 작품 전시

“국가대표 요리사가 왜 요리에 있어서도 한국인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와 이태리 요리가운데 ‘라비올라’가 제일 자신이 있다는 박용주(전남조리과학고 1년)군. 박군은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조리과 진학을 반대했으나 지금은 열렬한 후원자로 변신, 조언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마음 든든하다”고 말했다.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학생들의 직업·진로·체험 한마당 행사인 제 3회 전남실업교육박람회에는 박군처럼 자신의 특성과 취미를 살린 실업고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꿈의 무대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나의 꿈, 나의 선택 실업계 고교’. 이번 박람회에는 전남 도내 64개 실업계 고교와 기업체, 유관기관 등이 참가, 전남실업교육홍보관을 비롯해 학과홍보관, 작품전시관, 창업, 특기적성 발표관을 통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학생들과 함께 직접 자동차를 제작한 정의희(48·순천공고 자동차과)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자동차를 만들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람도 컸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오영식(순천공고 3년)군은 “오토바이 엔진을 자동차 엔진으로 재생했고 폐자로 버려진 티코 철판을 잘라내고 용접을 해 만든 자동차를 만들었다”며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자동차를 내 손으로 만들게 돼 자신감이 생겼다”며 환하게 웃었다. 전남도교육청 김준석(46) 장학사는 “박람회를 통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역민과 학부모들의 기존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업계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2년마다 한번 씩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40여개의 부스에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20일까지 동부지역 중학생 3만여명이 관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실업교육 박람회에는 학과별 홍보관과 작품 전시관 등 변화된 실업교육의 진면목을 소개하는 다양한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지역 단신/

여수해경 ‘블루가드’ 서비스 시행

여수해양경찰서가 해양경찰의 정책브랜드인 ‘블루가드(Blue Guard)’ 홍보에 나섰다. ‘블루가드(Blue Guard)’의 ‘블루’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와 해경의 푸른 기상을 상징하고, ‘가드’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바다를 만드는 바다의 보디가드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블루가드는 올해 7월 정식 브랜드로 선정된 후 이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해양레저객을 비롯한 일반 국민과 구조협력기관, 레저사업자, 정부기관 등이며, 서비스 내용은 ▲사고 예방 ▲사고 인지 ▲수색 구조 등 3단계로 구분돼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명예경찰 소년단 사격장 등 견학

순천경찰서(서장 김진희) 명예경찰 소년단 45명은 지난 18일 광주시 서구에 위치한 광주·전남지역 ONE-STOP지원센터와 서구 화정동 소재 경찰특공대를 견학했다. 이들은 경찰특공대 사격장에서 시뮬레이션 사격과 EOD(폭발물처리)탐지견 훈련장면 등을 견학하고, 원스톱 지원센터의 상담실과 진술녹화실·영상자료진료실 등을 둘러봤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Sunshine GWANGYANG

광양시 브랜드 슬로건 확정

광양시의 브랜드 슬로건이 ‘Sunshine Gwangyang’으로 확정됐다. ‘Sunshine Gwangyang’은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해를 상징하고 있다. 또 불굴의 시민정신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 희망을 가진 젊은 도시를 표현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4월부터 1개월간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 디자인 전문교수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거쳐 슬로건을 최종 확정 했다. 확정된 브랜드 슬로건은 업무표장등록을 거쳐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차별화된 시 이미지 창출에 활용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光 州 日 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나주 332-5544
광양 792-8111	무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보성 863-9700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순천 746-8111	완도 554-6677	장성 392-7000
고흥 833-9900	영광 351-0055	담양 483-8111
북동 842-2121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구례 783-8111	진도 543-0100	장흥 863-8822
곡성 362-8111	강진 433-8355	광산 944-0444
	함평 324-8111	창성 564-1919
		순창 653-6155

“美전투기 여수 이야포 피난선 오폭 6·25때 피난 민간인 150여명 사망”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주장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8월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야포에서 미군 전투기에 의한 양민학살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와 유가족이대혁(72)·이춘송(69·부산 사하구)씨 증언에 따르면 지난 1950년 8월 3일 부산에서 피난민 350명이 목선을 타고 와 이야포에 정착하던 중 미군 제트전투기 4대로부터 기총사격과 폭격을 당해 150여 명이 사망했다는 것. 여수 여도중학교 교사 오문수(53)씨는 최근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에 ‘안도의 비극, 56년전 비행기 폭격을 말한다(The Tragedy of Yiyapo)’라는 제목의 한글과 영문기사를 올렸다. 오씨는 “피난민들에게 사격을 가한 전투기는 일본에서 출격한 미공군 제25 전투비행단 F80 슈팅스타기로 추정된다”며 “당시 북한 인민군 6사단 일부 병력이 여수지역 점령을 위해 남하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피난선을 오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미군 전투기에 의해 이야포를 비롯해 남면 화태리, 돌산 군내리, 돌산 신기, 횡간도 등에서도 주민들이 집단 학살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사 진상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양민학살 사례로 접수된 120여 건의 사건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조사가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입소용 전문 병·난방기 대표 브랜드 -
입소용 병·난방기 - 쓸수록 돈 버는 센추리

▶ 무담보, 무보증, 장기분할 구입 가능 ◀

152만원 파격지원
75% 연료비 절감!
무보증 장기할부

1588-8717

‘땃살’ ‘변비’ 고민 ‘개미허리 23인치’

▶ 개미허리 23인치, 땃살, 변비 고민 해결

▶ 개미허리 23인치, 땃살, 변비 고민 해결

▶ 개미허리 23인치, 땃살, 변비 고민 해결